

에이유브랜드, 中 합작법인 설립... 락피쉬웨더웨어, 중국 시장 본격 진출

- ▶ 합작법인 7월 중 항저우 설립, 에이유브랜드 지분 51% 보유
- ▶ Hangzhou Yeazone · Clot 컨소시엄과 손잡고 3년 내 50개 매장, 1,500억 매출 목표
- ▶ 중국, 일본, 마카오, 대만, 태국 등 2분기 이후 글로벌 매장 본격 출점

[2025-05-23] 코스닥 상장사 에이유브랜드(AU BRANDZ)가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교두보 마련에 나섰다. 에이유브랜드는 오는 7월 중, 중국 항저우에 합작법인(가칭 '에이유브랜드 차이나')을 설립하고 현지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신설될 합작법인은 에이유브랜드가 51%의 지분을 보유하고, Shanghai Sheng Hong Jing Sheng Brand Management Co., Ltd.(이하 SHJS)가 49%를 보유하는 구조로 설립된다. SHJS는 중국 내 유통 강자 Hangzhou Yeazone과 하이엔드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Clot이 공동출자한 합작 컨소시엄이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Hangzhou Yeazone은 2008년 설립된 항저우 기반의 글로벌 스포츠 및 트렌디 패션 브랜드 유통회사로, 뉴발란스, MLB, HOKA, 오니츠카타이거, 크룩스, 리바이스 등 글로벌 스포츠·패션 브랜드의 중국 내 유통과 매장 운영을 맡고 있다. 현재 약 600여 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 중이며, 연매출은 약 20억 위안(한화 약 3,700억원)에 달하는 유통강자다.

파트너사 Clot은 홍콩 배우 에디슨 첸(Edison Chen)이 2003년 설립한 의류 및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고유의 감각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중국 및 글로벌 시장에서 독자적인 브랜드 세계관을 구축하고 있다. 'Juice Store' 등 프리미엄 리테일 채널을 통해 중국 하이엔드 스트리트 패션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합작법인 설립은 에이유브랜드의 대표 브랜드인 'Rockfish Weatherwear(락피쉬웨더웨어)'의 중국 내 전략적 확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다. 회사는 현지 소비자 니즈에 맞춘 제품 기획, 마케팅, 유통 전반의 로컬라이징(Localization) 전략을 실행하며, 중국 전역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판매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합작법인은 향후 3년 내 중국 주요 도시 중심으로 약 50개 매장을 출점하고, 이를 통해 누적 매출 1,5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이유브랜드 관계자는 "글로벌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중국 합작법인 설립은, 현지 유통 및 브랜드 운영에 강점을 가진 파트너들과의 결합으로 매우 전략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락피쉬웨더웨어를 통해 중국 소비자에게 감성 기반의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아시아



패션 시장 내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문의: 에이유브랜드 IR팀 (ir@aucommerce.co.kr)